

文學賞에 새바람 일으킨 '怡山문학상'

문학과지성사 제정...제 1회 수상자에 백무산·유순하 씨

출판사 운영 문학상 모두 26개

문단과 출판계 양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文學과知性社(대표 金炳翼)에서 '怡山문학상'을 제정했다는 사실이, 단순히 문학상의 숫자가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학상만큼은 선진국 부럽지 않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으로 볼 때 그리 주목받는 일은 못할 것이다.

「88문예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학상의 총수는 107개, 이중 출판·잡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학상은 26개로 2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만 손꼽아보더라도 계간 「세계의 문학」을 내는 民音社의 金洙暎문학상(詩)과 오늘의 作家賞(공모), 창작과비평사의 萬海문학상(종합·중단 이후 다시 시행)과 申東暉창작기금(종합), 문학사상사의 李箱문학상(소설)·素月문학상(시)·金煥泰문학상(평론·금년부터 시행), 문학과비평사의 연암문학상(종합)과 玄鎮健문학상(공모), 실천문학사의 노동문학상(종합) 등을 들 수 있고, 「현대문학」 「한국문학」 「동서문학」 같은 종합문예지는 물론 시전문지·시조전문지·아동문예지까지도 각기 문학상을 제정 운영해오고 있다.

문예지를 내지 않는 출판사가 시행하는 문학상으로 이름 있는 것으로는 사상계·조선일보사를 거쳐 현재 동서문화사가 맡고 있는 東仁문학상(소설)과 계몽사의 小泉아동문학상 정도이다. (이밖에 문학상은 아니지만 사회과학서적을 많이 내고 있는 한길사에서 단재상을, 국학단체를 주로 내는 일조각에서 月峰저작상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문학상이 순수하고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문예지를 내는 출판사라면 으레 한두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전용이거나 수상작의 단행본 출판을 염두에 둔 광고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제 눈에 물대기식' 운영 과감히 탈피

물론 賞이란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한 성격이나 수상의 당위성, 심사의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든 문학상도 없지 않았으며, 그러한 문학상의 범람은 문단 일각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결부되어 괜한 잡음만 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문학상의 총수는 107개,

이중 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학상이 26개로 4분의 1을 차지한다.

최근 문학과지성사는

김광섭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산문학상'을 제정,

제 1회 수상자로 시인 백무산씨와

작가 유순하씨를 결정했다.

이번에 제 1회 수상작을 낸 문학과지성사의 '怡山문학상'은 일단 그러한 세속적 利害와는 멀리 떨어진 운영방식과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수상후보작을 이미 단행본으로 출판된 작품(집)으로 한정지음으로써, 이 상을 공로상이 아닌 엄격한 작품상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동시에 自社의 단행본 출판 이익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암시했다. 또한 이번 수상자인 시인 백무산씨와 작가 유순하씨의 문학적 성향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文知의 노선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의 작가에게 과감하게 월계관을 씌워줌으로써 '제 눈에 물대기식'의 운영에서 벗어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남는다. 심사와 운영을 엄격히 분리하겠다는 주최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文知에서 최초로 제정한 문학상이 왜 '怡山'문학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소설부문 심사를 맡은 이상섭교수는 심사평에서 "이 상은 이상문학상도, 김동인문학상도, 오늘의 작가상도 아닌 '怡山'문학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어 있었다. 그 성격을 한두마디로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워도 이산의 문장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와 노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작가에게 주어야 할 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산 金洙暎시인의 문학세계가 무엇인지부터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단편소설의 미학적 성취를 중시한 東仁이나 실험성을 강조한 모더니스트 李箱, 불교정신과 향일운동의 萬海, 반외세 민족주의자 신동엽, 자유주의자 金洙暎과 달리 怡山은 이름 자체가 내뿜는 독특한 개성과 체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 怡山문학상은 '怡山'이라는



시인 백무산씨

자연인보다는 이왕 이 상의 운영을 담당하기로 한 文知의 체증이 더 무겁게 실릴 수밖에 없으며, 또 실려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번의 수상자 결정은 문지의 문학노선에 비취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으로 갈라지고 있다.

우리 시대의 뜻깊은 성과물

의심할 바 없이 유순하씨의 「生成」이나 백무산씨의 「만국의 노동자여」라는 작품집은 우리시대 문학의 뜻깊은 성과물들이며, 어떤 상이라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학노선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일단 의아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듯하다.

구체적인 점까지 따지고 들어간다면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두 작품은 모두 '노동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백무산씨는 울산의 공장에서 현장노동을 하는 시인답게 당파성과 계급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유순하씨는 중간관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용자와 노동자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성 내지 객관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문학'에 문지에서 운영하는 문학상이 수여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경향성을 따지지 않고 작품 자체의 우열만 고려한 결과인가.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이념과 인식론적 지평을 고려하지 않은 작품의 우열비교란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뒤따른다.

백무산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자신은 '팔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번엔 "팔자에 없는 賞"을 받게 된 곤혹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수상이 정식으로 공개되기 전 현재 전민련에서 일하고 있는 한 '뽕쟁이시인'은 백무산이 어떻게 문지에서 주는 賞을 받을 수 있느냐고 분노



작가 유순하씨

(?)하면서, 백무산은 아마도 이 賞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어떤 소설가는 노동운동자금을 위해서라도 아마 백무산시인은 이번 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이번 수상을 둘러싼 예언은 리얼리스트 작가의 승리로 귀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공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작은 소란은, 현재 우리 문단이 또 하나 극과 극으로 찢겨 있으며 사소한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어떤 한 문학상의 수상자가 결정됐을 때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축하를 보내기 전에 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됐느냐부터 따지는 것이 요즘 우리 문단의 풍토이며 현주소이다. 오해라면 오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생각들도, 그러나 이번에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읽어보면 대부분 풀릴 것 같다. 가령 시부문 심사를 맡은 김현교수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시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즐길 대상이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표현을 빌면, 오디는 오디대로 맛있고 무화과는 무화과대로 맛이 있다. 그런데 심사는 그 맛들을 무시하고 단 하나의 맛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그야말로 밥맛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맛있는 일반 하고 살 수야 있는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주장하고, 찬성하고, 반대한다."라고 말하면서, 비록 자신은 다른 시인을 밀었지만 이번 수상자에게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축하의 말을 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문학행위라는 것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는 점은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지극히 짧고, 사람들은 다시 길고 지루한 세속적 다툼에 휩싸여야 한다.

<남진우>